

# 2018 공공미술 프로젝트 「퍼블릭×퍼블릭」 행사 개요

## □ 행사개요

- 행사명 : 공공미술 프로젝트 「퍼블릭×퍼블릭」
- 일시 : '18.9.28.(금) 10:00~21:00 / 29.(토) 10:00~18:00
- 장소 : 광화문 중앙광장
- 대상 : 공공미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
- 주요내용 : 대형 미술작품 전시, 작가의 예술 스튜디오 체험, 휴식시설형 건축 디자인물 설치, 사운드아트, 시민참여 프로그램 “열려라 남북” 등

## □ 세부 프로그램 (※ 행사기간 동안 프로그램 상시 운영)

구분	작품명	내용	
설치작품 전시·체험	[오픈-파빌리온] : <b>프랙털의 숲</b> - 천대광 작가	광장 중심부에 위치될 프랙털 구조의 공간 연결형 대형 건축 미술작품으로, 시민이 직접 작품 안에 들어가 움직이거나 쉴 수 있도록 개방됨	
	[오픈-스튜디오]	<b>#틀을깨자</b> - 서동일 작가	프레임이 깨진 채 조명으로 둘러싸인 거울 작품 속으로 관람자가 보이는 관객참여형 작품으로 SNS로 연결 가능함
		<b>쉽,호흡', 막힌 숨을 열다</b> - 이창연 작가	사람의 호흡 패턴으로 움직이는 목화솜꽃밭의 키네틱 작품으로 출구에서 작가와 직접 '쉽, 호흡'의 경험을 나누게 됨
		<b>숨틈</b> - 채아람 작가	꼭꼭 숨겨온 나의 이야기를 적어 광장 위 작품 공간에 숨김. 이것은 그러나 누군가가 찾을 수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는 시민참여형 작품
	[오픈-스페이스] : <b>광화문 포-레스트</b>	작품들과 조화를 이루며 광장 곳곳에 나무와 바위를 연상시키는 그늘막과 벤치가 설치되어 시민휴식 공간 제공	
시민참여 프로그램	[오픈-게이트] : <b>열려라 “남북!”</b>	광장 입장 시 게이트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, 남북이 열릴 수 있는 암호, 또는 열리기 위한 소망 등을 외치면 인증샷을 찍어주고 사진 위에 캘리그래피 작가가 시민이 외친 메시지를 적어주는 프로그램	
	[오픈-사운드] : <b>소리로 열어내어</b>	<b>1] 어떤 것도 괜찮아 중</b> 여러 가지 소품을 조합해 소리 나는 '풍경'을 만들어 광장 걸어놓는 사운드아트 프로그램 <b>2] 소리로 놀아보자, 구르골</b> 무음계 악보에 자유로이 구멍을 내어 오르골로 들어볼 수 있는 사운드 아트	
특별공연	[오픈-퍼포먼스] : <b>광화문 유랑</b> - 음악그룹 나무+안형모	<b>[일시] : 9월 29일 (토) 13:00~13:30</b> 광장을 이동하며 대금, 피리, 타악 등 국악기를 연주하는 이머시프 퍼포먼스	